

내생에는 스님되게 하소서 (상)

서진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대인모의고사를 마치고 우연히 들른 집 근처의 한 사찰, 고즈넉한 분위기에 간간히 들리는 풍경소리가 수험생인 내겐 무척이나 편안하고 신선한 경험이었기에 법당 앞 툇마루에 걸터앉아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당시 교회에 다니던 나는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뭔지 모를 불경스러운 대상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 날의 일 자체가 파격이었고, 지금도 더더욱 부처님과의 인연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날 일로 인해 대학에 들어가 군을 제대할 때까지 사찰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주지스님의 권유로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인 단기출가 생활을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하게 됐다.

비록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벽 두시 반부터 밤 아홉시까지 교육과 율령 그리고 기도도 이어지는 생활은 그야말로 불교의 '삼정교육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생 처음 겪는 낯선 환경과 생활, 아무리 신심을 내어 도전했다고는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

겨우겨우 겨울이어서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예불 때 불전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으면, 두 손과 발은 이내 발길게 열려붙고, 옷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들이 스며들어 <예불분>과 <천수경>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온통 '언제 끝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윽고 예불이 끝나고 나면 공양간에서 채공과 경두의 소임을 맡아 아침공양을 준비한다. 아침공양이 끝나면 곧바로 스님들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제 배운 것부터 암기해 시험을 보고나서 그날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후, 한숨 쉴 틈없이 하던 원주스님은 매일매일 행자들이 지루할까 걱정이 되셨는지 다양한 일거리로 잠시 쉬는 시간도 율령으로 채워주었다.

그러다가 다시 점심공양을 준비하고, 또 율령을 하다가 저녁공양을 준비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한번은 아침공양을 마친 후, 가족이나 잠도 많은데 잠을 못 자다 보니 수면부족으로 제 명에 못살겠다 싶어 절에 찾아오는 불자들이 처소 옆에 있는 이발방에 숨어들어 이발사에게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점심까지 실컷 잠을 잔 기억도 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심하게 혼백 거라고 생각했던 원주스님이나 다른 행자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탈영'을 상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개해 주

는 발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녘 차디찬 얼을 물로 잠을 깨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불문>을 독송하고, 108배를 하고 경전을 암송했다. 얼마 전 손끝과 발끝을 얼어붙게 했던 추위는 더 이상 나에게 번뇌와 장애가 아니었다. 아침에 공양을 준비하고 공양을 마친 후 산터미 같은 설거지조차 즐거웠고,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경전공부도 소중히 한자 한자 새기면서 율령시간 틈틈이 외우고 새겼다. 또한 계곡 옆 사자루에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께 백팔 배와 기도정진을

사찰 청년회 활동하며 송광사에서 단기출가 고된 교육과 율령에 도망칠 생각도 시간 지날수록 '해보자' 하는 마음 생겨

신 주지스님의 얼굴과 '이런 일조차 이기지 못하면 뭘 하겠다' 싶은 자존심 때문에 약삭같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언젠가 끝은 있었지" 하면서.

어느덧 한달 정도 시간이 흘러 사회에서 배어들었던 속물근성들이 점점 빠져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단지 얼마 전 사발해버린 머리가 계속 눈에 거슬릴 뿐이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번잡하고 복잡하던 머리 속은 실타래가 풀린 양, 명료하고 밝은 느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변 나무의 향기, 바람 내음, 개울의 물 흐르는 소리 등 옛날에는 지나쳐버린 사소한 것들이 나를 즐겁게 했고,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 내 스스로 '행자생활도 기도도 경전공부도 제대로 해보자' 하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힘은 줄 뿔랐고, 마음은 환희심에 가득 찼다. 주위의 스님들도 그런 나에게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관음전에서 1000일간 묵언 관음기도를 하였던 스님이 계셨다. 당시 기도를 시작하신 지 2년째 접어들었는데 매일 '사바정근'으로 거의 10시간 정도를 기도에 매진 하셨다.

가끔 스님은 겨울철이라 감기몸살에 목이 잠기고 온 몸이 땀에 젖어 매우 편찮으신데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전을 지키셨다. 지금 기억에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약을 계속 드시는 것 같았는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라고 물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수행이 부족해서"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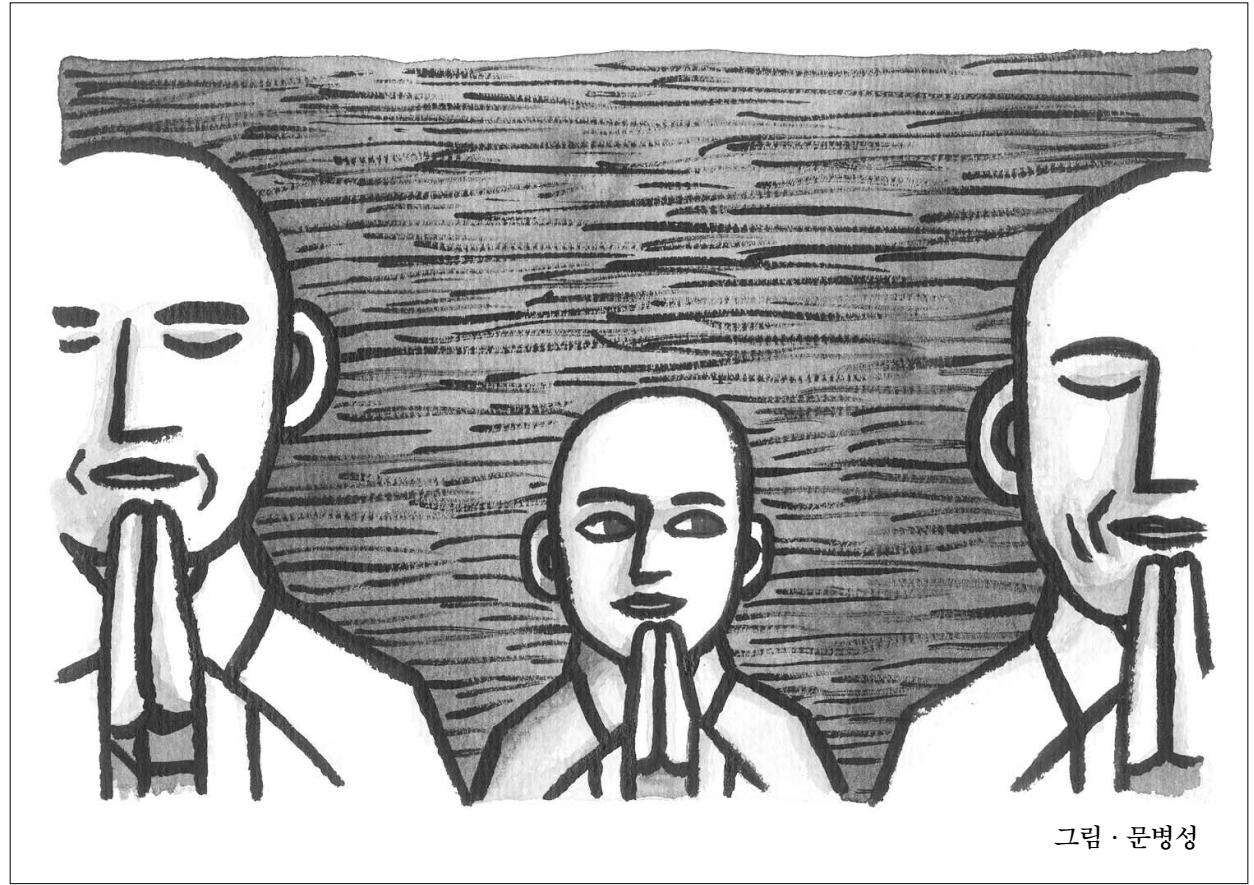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글로 써 보이면서 더더욱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린 나에게 송고하고 고귀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째 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여겨졌다. 분명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루정도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 가슴 한 편이 저리면서, 얼마 전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발방에서 주위를 속이고 계으름을 피운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스님의 천일기도정진으로 송광사 경내는 하루 종일 관음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무명업장의 어리석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에게 큰 가르침이자 경계의 소리였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불자들이 보시해주는 크립쟁이나 과일 등을 남몰래 챙겨 드리거나 가끔 스님을 따라 관음기도에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스님이 현봉 스님이

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벌린 스님으로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셨다. 몇 해 전인가 송광사 주지스님 소임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벌인 스님들 중에서 '스님님'이 많이 배어 나오는 스님중 한 분이였다.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구수하고 꾸밈이 없어 하시는 말씀마다 송광사 뒷산인 조계산의 풍광과 참 많이 들어있었다. 가끔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강연회에 찾아보면 언제나 녹차를 정성

스레 내려주시면서 "열심히 행사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신도들이 가져온 빵이나 과자 등 간식거리까지 챙겨주셔서 친한 형제들과 나눌 만한 기억도 난다. 그래서 다른 행자님들과 "현봉 스님이 최고 아니냐" 또는 "너, 현봉스님 상좌해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행자들 사이에서도 강연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일순위로 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됐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포 담겨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후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판(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목탁교육

불교기초의식부터 장례의식등 목탁치는 법을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지도해 드립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장소
금강선문(성수동) 지하철 2호선 7호선 6번출구 (건대입구역 성수동, 영등대교 방향 5분거리 우리은행 옆 건물 3층)

02)465-7530, 011-257-3511

영험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 못하는 이기주의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일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연락처 031)736-3734** 해원사 치세요 **031)732-3790**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감동 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53회 3000배 철야정진

팬스 같고 닭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는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연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명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공경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루십시오.

● 날짜: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관수건), 수건 2개(담뽀용-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개, 수련복(하의)2개,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하얀마음선원**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보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동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루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과회전 50M 경유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